

危險管理 萬能의 神話

某新聞 報道에 의하면 各保險會社別로 危險管理를 專擔하는 部署내지는 人員을 두어 付保物의 危險管理를 하게 하고 結果的으로는 出受再上의 逆潮를 是正케 하려는 施策이 推進되고 있다고 한다. 報道內容의 眞僞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發想은 一見 그럴듯 하나, 이를 實際的으로 適用할 때에 理論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實踐에 앞서 解決해야 할 問題도 적지 않다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危險管理의 概念부터 統一된 것이 아니라면 事實을 말해야 할 것 같다. 或者는 危險管理를, 企業의 可能한 disturbance potentials를 處理키 위한 넓은 意味의 management 分野中 一部라고 보는가 하면, 或者는 이를 單純히 損害防止라는 옛 名稱이 새 名稱으로 粉飾(분식)한 것에 不過하다고 보는 것이다(Sigma, Swiss Reinsurance Co. (Economics studies, No.10 / Oct. 1981)). 危險管理의 定義조차 統一되어 있지 못한데 우리 保險業界가 指向하는 目標은 果然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은 危險管理의 要諦는 PML의 算定 및 이를 통한 適正保有線의 決定, 또한 그로 인한 良質의 付保對象의 選擇과 利益의 提高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外國再保險社들이 良質이 아닌 物件만 받아들일 것이라는 假定은 어리석은 것이다. 누가 危險이 큰 物件만을 希望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危險管理 專擔 技術者를 會社別로 많이 保有하면 많이 保有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人件費, 技術開發費等 經營面을 度外視하고 會社別로 그러한 措置를 하는 경우는 危險管理制度가 第一 發達되었다는 美國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形편이다. 美國의 損害保險會社들은 그들이 加入하고 있는 協會의 技術陣을 Pool로 利用하고 있으며, 극히 一部の 大會社만이 技術 Pool을 補完하기 위한 自體 技術者를 保有했을 뿐이다. 會社마다 技術陣을 갖추고 이들을 訓練시키는 사람들과 教育施設을 갖추고, 會社마다 技術開發에 돈을 쏟는다는 것은 國家的으로 보아도 浪費이며, 日本·유럽 등에서도 이러한 事例은 없다.

危險管理가 萬能이라는 思考는 하나의 誤謬이며 幻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先進國 火災保險分野가 赤字를 자주 顯示하는 例에서도 證明이 된다.

더구나 危險管理 理論이 아직 定立되지 못한 이 時點에서 그 技術이 開發 定着되려면 會社別로 많은 人員을 들들 遙遠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外國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技術 Pool을 育成, 發展시켜서 力量을 모으고 技術을 集中的으로 開發케 하는 일이 急先務라고 主張하는 바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過程主義” 아닌 “結果主義”에 젖어 있는 탓인지 모든 일을 너무 쉽게 判斷하고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Slowly but steady의 精神이 아쉽다.*